

#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도의 노동시장 및 고용변화와 정부의 대응



경제위기와 국가별 노동현황

이슈분석 ⑧ - 인도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 머리말

미국발 금융, 실물경제 침체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인도 또한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덜한 편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인도는 대외의존적도가 낮았다. 현재 인도는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4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크고, 금융시장 개방수준이 낮으며, 현재의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는 3,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에 갑작스런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약 10년의 세월이 흘러 세계 금융위기가 온 지금의 인도는 1997년의 인도와는 분명히 다르다. 현재 인도의 경제구조는 세계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인도 내 각 산업들이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하락은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 경제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상태로 보고 있다. 4~5%를 유지하던 인도의 도매물가 인상률은 2008년 국제 원유가 상승과 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지난 8월에는 12.5%까지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은 소비 둔화로 이어져 성장의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8%의 경제성장의 신화가 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이전에 거론되었던 것과 성격이 다른 것이며,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sup> 유가 상승의 영향을 적게 받는 비제조업은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10%를 넘던 제조업 성장률이 5.6%대로 떨어지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업 계통의 경우 인도에 진출한 모기업이 본국에서 성장에 위협을 받고 있고, 이들 노조들이 해외 아웃소싱을 반대하고

있어 인도 아웃소싱 관련 서비스 산업도 정체 및 침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기사를 토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이 인도 노동시장 및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 노동시장의 변화

세계 경제위기는 인도의 주식시장과 노동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6일에는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의 지수 1만 2000선이 2년 만에 붕괴되었으며 20일에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도는 올 하반기와 내년 성장을 달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각 기업체는 감원 및 신규 채용인원 감소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세계경제 및 금융위기는 인도 전역에 암울함을 드리우고 있지만 이로 인한 영향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sup>2)</sup>

### 서비스업

NASSCOM의 의장(Ganesh Natarajan)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IT 산업에서 신규 채용이 당초 신규 채용 예상 인원인 27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고, 내년에는 급여가 2.5%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특정회사에서 인원 삭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이유 때문으로 봐야 하며, 업계 전반은 인력 감원은 없을 것이다”라며, IT 및 IT관련 업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sup>3)</sup> Infosys Technologies의 회장(N.

1) 인도 경제사를 볼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2~1974년 스태그플레이션은 문순의 영향으로 인한 식량 문제와 1차 석유위기가 그 문제였다. Chandra, Bipan(2008), *India since independence, NewDelhi: Penguin book*, pp.311~313.

2)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로 부동산업계 1, 2위인 DLF와 유니테크를 포함한 대형 업체들에서 20%선의 감원이 예상된다.

3) <http://www.zeenews.com/Business/Economy/2008-11-04/480931news.html>

R. Narayana Murthy) 역시 인도의 IT산업은 세계 경제침체 속에서도 대규모 축소나 고용 감소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위기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지만 루피의 약화는 IT 산업에서는 수익 증대를 가져오며, 상대국에 비해서 인도의 IT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한다.<sup>4)</sup> 동시에 그는 성장이 늦어지고 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기존 인력을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는 등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혀 이 분야는 대량 감원보다 인력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 조정의 방향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 텔레콤 사례에서는 세계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인도 IT 및 IT관련 업계의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 기업은 지난 1, 2분기의 세전 수입이 11% 줄었고, 이에 따라 2009년 봄까지 1만 명 규모의 직원을 해고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그 대상이 본사만이 아니라 관계사와 계약직 직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인도 직원 감원도 예상되었다.<sup>5)</sup> 그러나 이 회사 대변인은 인력감원 주 대상은 영국 본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도 운영인력 감축은 없으며, 기업 정책이 인도 인력의 특화된 업무를 줄이는 것으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힘으로써<sup>6)</sup> 인도 IT 서비스 업무 인력 유지 입장을 확인시켰다.

인도 아웃소싱 IT 및 IT 관련 서비스 업체의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은 모기업 노조 및 정부의 정책 변화이다. 인도 IT 및 IT 관련 서비스 업체 주요 모기업 본국인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외국으로 아웃소싱은 더 이상 없도록 줄여나가겠다”는 그의 공약이 실제로 IT업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sup>7)</sup> 그러나 그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업들이 정치적인 방향과 노조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이 오히려 인도에서의 IT 및 IT 관련 업체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인도 인력을 인건비가 비싼 모국의 인력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어 모 기업체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재 인도에서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IT 인력의

4)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s\\_By\\_Industry/Jobs/No\\_job\\_cuts\\_in\\_IT\\_industry\\_says\\_Narayana\\_Murthy/articleshow/3662926.cms](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s_By_Industry/Jobs/No_job_cuts_in_IT_industry_says_Narayana_Murthy/articleshow/3662926.cms)

5)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bt-announces-10-000-offshore-job-cuts/385279/>

6)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s\\_By\\_Industry/Jobs/India\\_sees\\_strong\\_hiring\\_plans\\_amid\\_firing\\_of\\_people\\_worldwide/articleshow/3719329.cms](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s_By_Industry/Jobs/India_sees_strong_hiring_plans_amid_firing_of_people_worldwide/articleshow/3719329.cms)

7)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articleshow/3705218.cms>

대량실업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인도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일부 금융업계는 이러한 경향과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비용절감을 위해 지점을 축소, 통합하고 신규 채용을 자제해 오던 인도 공기업 SBI(State Bank of India)는 11월 16일 2만 5,000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세계적인 위기 시기에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SBI 회장(O.P. Bhatt)은 현재 SBI는 가계 대출과 교육 대출에서 선두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고 자산 규모도 튼튼하다고 밝히며, ATM을 9,000개에서 1만 5,000개로 증대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sup>8)</sup> 이것은 미국계 기업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인도의 인력을 200명 줄이겠다고 한 것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다.<sup>9)</sup> 인도 The Jammu and Kashmir Bank, M. Pallonji and Co. Private와 협력하여 벤처 형태로 창립된 Limited MetLife India Insurance Company 역시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16일, MetLife는 인도 국내 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2,000명의 매니저와 3만 명의 에이전트를 고용할 것을 밝혔다.<sup>10)</sup> 금융업계의 경우 인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인도의 토착 기업이나 합작 회사들은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들과 다르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위기의 때에 오히려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서비스업은 항공업계이다. 고유가로 운영 위기를 맞은 인도 항공업계는 합병 및 직원 감원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인도 최대의 민영항공사인 Jet Airways 가 Kingfisher Airlines와 제휴를 결정했다. Jet Airways는 지난 이사분기에 Rs 384.53crore(약 1,124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 항공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1,900명을 해고할 것을 발표했으나,<sup>11)</sup> 이것이 좌절되자 5~25%의 직원들의 임금 삭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sup>12)</sup> Kingfisher Airlines은 조종사 연수생들의 급여를 줄이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에 나섰다. 공기업 에어인디아도

8)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s\\_By\\_Industry/Jobs/SBI\\_to\\_hire\\_25000\\_persons\\_this\\_fiscal/articleshow/3720224.cms](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s_By_Industry/Jobs/SBI_to_hire_25000_persons_this_fiscal/articleshow/3720224.cms)

9)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amex-india-asks-200-employees-to-quit/380866/>

10)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metlife-to-hire-2-000-managers-30-000-agents/386393/>

11)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largescale-job-cuts-in-india-unlikely-cabinet-secy/388297/>

12) <http://www.thehindubusinessline.com/2008/11/24/stories/2008112451570100.htm>

직원 2만 5,000명 가운데 1만 5,000명에게 길게는 5년간 무급휴직으로 돌릴 것을 고려 중이다.

## 제조업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섬유업계로 보인다. 인도 섬유산업 협회(Confederation of Indian Textile Industry) 관계자에 따르면, 섬유업계 대부분 주당 3~4일만 가동되고 있거나 전체 생산 능력의 75%만 가동하고 있다.<sup>13)</sup> CITI에 따르면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로 가을 시즌에 30~35%의 수출 물량이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 회계 연도에 90억 달러를 수출했으나 올해는 75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섬유 업계는 면화 가격의 상승과 주문 물량 감소로 지난 6개월간 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이는 생산직만이 아니라 관리직까지도 포함되기는 하나 주된 감원 대상자는 이 직종 종사자의 25~30%에 해당하는 일용직이다. 이러한 현상은 타밀 나두,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와 북인도에 있는 공장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CITI의 회장(R.K. Talma)은 “최근 섬유업계는 그날그날 운영할 비용 외에 별도의 여유자금이 없어서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회사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인도 섬유산업 경쟁국인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예년 수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섬유산업 관계자들은 인건비가 싸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키스탄의 섬유업계가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인도가 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5)</sup>

다이아몬드 수출 업체 역시 세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16)</sup> 다이아몬드 관련업계의 경우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이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아몬드 산업의 경우 지난 2007년 크리스마스 시즌 수출에 힘입어 15%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하반기의 판매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3/4 분기 매출이 이미 50% 정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아몬드 산업을 발달한 구자라트에는 3,500여 다이아몬드 관련업체에서 100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수라트에는 2,500여 다

13)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articleshow/3687123.cms>

14)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_by\\_Industry/Textile\\_sector\\_may\\_lose\\_7\\_lakh\\_jobs/articleshow/3678535.cms](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_by_Industry/Textile_sector_may_lose_7_lakh_jobs/articleshow/3678535.cms)

15) [http://www.yamsandfibers.com/news/index\\_fullstory.php?id=17002](http://www.yamsandfibers.com/news/index_fullstory.php?id=17002)

16) <http://www.hindu.com/2008/11/09/stories/2008110960081500.htm>

다이아몬드 관련업체에서 65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과반수 산업체에서는 매출 감소가 고용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이미 영세업체의 경우 50%의 직원을 해고한 곳이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체 업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의 판매가 5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이아몬드 산업에서는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sup>17)</sup>

중공업 관련 업체는 국내외의 수요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두 트럭 생산업체인 타타 모터스(Tata Motors)는 전년 대비 판매율이 20% 감소되면서 푸네 생산라인에서만 이 달에 6일간의 조업을 중단했다. 타타 모터스는 또한 세계 경제침체를 이유로 Jaguar Land Rover 생산 인력 400명을 해고할 것을 발표했다.<sup>18)</sup> 두 번째 트럭 생산업체인 Ashok Leyland는 일주일 중 주 3일만 일하고 있다. 철강 제조사인 JSW 스틸은 이달부터 생산량을 20% 줄일 것이라고 했으며 다른 철강 제조사인 Essar 또한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sup>19)</sup> 그러나 11월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GM은 인도 내 Talegaon 공장에서 500명의 신규채용을 추가할 것이며, 2010년까지 인도 내에서의 자재 구매를 10억 달러까지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sup>20)</sup> 이와 같이 일부 제조업의 경우는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로 인한 감원이 예상되며, 일부 해외 업체들이 저렴한 노동력 제공 국가로 이동하는 양상에 따라 인도 노동시장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세계 경기침체 및 위기론은 고용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원의 주요 대상은 임시직 및 계약직이었다. 또한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직 계약직 고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임시직 근로자는 25~30%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인도 기업들은 계약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는 비용절감이 유용하고 해직과 고용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은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

17)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articleshow/3726538.cms>

18)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tatas-jlr-to-cut-400-more-jobs/381736/>

19)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crisis-takes-toll-on-jobs-man-hours/383259/>

20)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GM\\_to\\_hire\\_500\\_new\\_workers\\_for\\_Talegaon\\_plant/articleshow/3720247.cms](http://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GM_to_hire_500_new_workers_for_Talegaon_plant/articleshow/3720247.cms)

21)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articleshow/3697309.cms>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직화된 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인도에서 직원수 1위에서 5위 기업체에서 총 12만 명의 임시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각 업계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항공업계가 어려워지고 감원이 시작되자 단기 파업을 계획하고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비용절감을 향한 경영자 측의 경영 방침은 바꿀 수 없다. 감원에 대해 노조가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시하는 등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해고를 단기간 내에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장의 노조는 소속된 상위 연맹들의 지원을 받고 대응하고 있지만 기업의 감원을 막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직 근로자들의 생활이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감원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과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고 말한다. Watson Wyatt Worldwide 컨설팅 회사 인도 지사장 (Kulin Patel)은 “인도 기업의 95%은 해고시 줄 자금을 아예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인도 해직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피력했다.<sup>22)</sup>

## ■ 정부의 대응

인도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지원금이나 관세를 줄여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고유가로 항공사가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했을 때 인도 정부는 각 항공사에 60일 지불 기한을 90일 지불 기한으로 연장해 주었으며, 연료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서 항공연료 가격을 낮춰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산업의 고용과 이윤을 유지하도록 돕고, 특히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섬유 산업의 경우, 정부는 기술지원 자금으로 Rs 2,000core(약 6,02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가오는 회계 연도에 Rs 1,090core(약 3,285억 원)를 책정하고 있다. 또한 맘모한 싱 수상은 11월 3일 델리에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반사적인 대응으로서 대량 해고는 없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업측에 호소하였다. 또한 정부는 해고에 대해 별도의 자금

22) <http://www.business-standard.com/india/storypage.php?autono=338010>

을 마련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가 하면, 섬유산업의 감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마하라쉬트라 주정부에서는 지역 산업에서 80%의 일자리를 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23)</sup>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경기침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해고 직원에 대해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해직근로자를 돕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4)</sup> 또한 일부 주정부에서 지역 산업의 일자리를 보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기업들의 감원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섬유업계는 정부에 기술지원금으로는 인도 섬유산업을 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5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섬유 산업분야는 정부의 지원책에서 자신들은 소외되었다고 발표했다. CITI는 인도 정부가 섬유 업계에 대해 중국이나 파키스탄처럼 수출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수출장려정책을 줄여가고 있다고 한다.<sup>25)</sup> 인도 정부는 작년부터 섬유 수출업자에게 낮은 이율의 대출을 해주었으나 루피가 약화된 이후인 올해 10월부터는 이를 철회했다.<sup>26)</sup> 섬유산업의 위기가 거론되기 시작했던 2006년에 기술지원금은 종료 예정기인 2007년 3월에서 연장되어 계속 지원되고 있으나 오히려 지원금액은 줄었으며, 이 지원금만으로는 인도 섬유산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섬유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인도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사고로 섬유산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섬유업계에 절망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23) [http://indiatoday.digitaltoday.in/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382&issueid=80](http://indiatoday.digitaltoday.in/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382&issueid=80)

24) <http://www.business-standard.com/india/storypage.php?autono=338010>

25)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Jobs/Textile\\_industry\\_may\\_lay-off\\_5-6\\_lakh\\_employees/articleshow/3686284.cms](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Jobs/Textile_industry_may_lay-off_5-6_lakh_employees/articleshow/3686284.cms)

26)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_by\\_Industry/Textile\\_sector\\_may\\_lose\\_7\\_lakh\\_jobs/articleshow/3678535.cms](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_by_Industry/Textile_sector_may_lose_7_lakh_jobs/articleshow/3678535.cms)

## ■ 맺음말

미국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도에서는 기존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내년 성장 전망치도 낮추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인도 상공회의소 측은 서비스업과 농업의 선전으로 올해 8%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인도 정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통화정책으로 다음달에 진정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이 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 정부가 중요 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IT를 비롯한 서비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성장률 감소가 예견되고 있긴 하지만 대량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타격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수출에 의존하는 섬유산업과 다이아몬드 가공 수출업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섬유산업의 경우 주요 고객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로 수요 자체가 감소하였고, 이들 국가들이 인건비가 낮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며, 이것은 인도 내 이들 산업 종사자의 감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가 소비품인 다이아몬드 산업은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자 직원을 해고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나 노동조합, 정부 어떤 쪽도 명확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의 경제발전을 통해 고용창출을 꾀하려고 설치한 국가제조업경쟁력위원회(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ouncil : NMCC)에서도 고용창출은커녕 대량해고를 막을 방안이나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정부의 일부 자금지원 정책과 해직에 신중할 것에 대한 권면 및 해직 관련 세금 정책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극감한 인도 섬유산업과 다이아몬드 관련 업체는 대량실업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LI**